

現 고2, 입시 요강 필독... 논술 부활·수능 최저 강화된다

〈고려대〉

〈연세대·한양대〉

2025학년도 국내 주요 대학입시 변화
자연계열, 선택과목 지원 제한 줄여
동일 계열 지원 시엔 가산점 추가
연세대, 논술·교과전형 면접 폐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고려대가 7년만에 논술전형을 부활하고 연세대와 한양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내 주요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식이 변화한다. 특히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정시에서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지원 제한을 폐지하는 주요 대학이 속속 늘지만, 동일 계열 과목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추가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교차지원이 활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고려대, 수시 논술전형 7년 만에 부활**
각 대학들이 최근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고려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입장을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뉴시스

대가 논술 전형을 7년 만에 다시 도입하고 전체 선발 인원의 7.9%인 334명을 55개 모집단위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반면, 성균관대(2023학년도), 중앙대

(2024학년도)가 과학논술을 폐지한데 이어 연세대도 논술전형에서 과학논술을 없앴다. 2025학년도 과학논술을 치르는 대학은 경희대(의약학계열), 서울여대, 아주대(의학과) 등 소수 대학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강화하는 추세다. 고려대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며, 대부분 모집단위는 4개 영역 등급 합 8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이다. 단, 경영대학은 4개 영역 등급 합 5이내로 기준이 매우 높다.

연세대도 2025학년도 고려대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과 비교했을 때 인문계열은 유사한 수준, 자연계열은 다소 낮은 기준으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한다.

◆ **선택과목 따른 지원 제한 폐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자연계열 지원자에게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는 대학이 늘어난다. 고려

대 정시에서는 수학영역 선택과목에 따른 지원 제한이 없어진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도 과학탐구 응시 시 자연계열에 지원 가능하다. 다만, 이는 다른 대학들의 탐구 영역 제한 해제와는 대조적이다.

성균관대와 연세대도 정시에서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지원 제한을 폐지한다. 단,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경우 과학탐구 과목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정시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연세대도 인문사회계열 지원자 중 사회탐구 응시자와 자연계열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에게는 각 탐구과목에 3%의 가산점을 추가한다.

이화여대는 수시와 정시 모두 선택과목 제한이 없어지지만, 정시에서 자연계열 지원 시 과학탐구에 1과목 당 6%의 가산점이 부여돼 사회탐구 선택자의 교차지원은 제한될 수 있다.

서강대는 2024학년도부터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제한이 없다. 정시 가산점에서 작은 변화가 있는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선택시 부여하던 0.5점의 가산점을 최대 1과목에만 적용한다.

◆ **연세대, ‘교과전형’ 면접 폐지하고 이대는 단계별 진행**

연세대 학생부교과(추천형)은 면접을 폐지해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방식은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으로 변경된다.

이화여대 고교추천전형은 2025학년도부터 단계별로 진행된다. 우선, 학생부교과 성적 상위 5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한 후, 해당 학생만 대상으로 면접 고사를 치른다. 단, 2023학년도 경쟁률을 보면 5.51대 1로 지원자 중 대다수가 면접에 참여할 수도 있다. .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9호선 新열차 투입 앞당긴다

올 연말 내 3~4편성 우선 투입
2·4·7호선도 국비 확보 후 추진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9호선 급행열차를 탑승해 혼잡 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열차 투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출근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여의도역에서 동작역까지 이동하며 혼잡도를 살폈다. 그는 “혼잡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부터 운행 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밀려드는 승객을 감당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먼저 시는 지하철 9호선 신규 열차 투입 시기를 내년 초에서 올 연말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3~4편성이 우선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올 4월28일에는 8편성 중 초도편성 차량이 개호 차량기지에 입고 완료돼 시운전 등 운행 전 마지막 준비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추가 입고 예정 차량을 포함해 올 연말 내 3~4편성 우선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 4, 7호선 등 혼잡도가 높은 다른 노선은 국비를 확보해 지하철 증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2호선은 2편성, 4호선은 4편성, 7호선은 3편성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규 전동차가 투입되기 전까지는 노후 전동차 중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전동차를 활용해 혼잡도를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내구연한(25년)이 도래한 전동차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5년간 추가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내년까지 5호선 1편성, 7호선 3편성, 8호선 1편성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자선 문화 확산 등 공존 정책 펴는 세계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자선 문화 확산,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제공, 이륜차·자전거 대기공간 설치 등의 공존 정책을 펼치고 있다.

8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 물가가 치솟아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라마단 기간에 ‘파용 라흐마’(자비의 우선) 정책을 추진했다. 파용 라흐마 프로젝트는 생필품, 외식비를 지원하는 단기 사업이다.

말레이시아는 내달 중 정책 효과성을 분석해 파용 라흐마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델리 NCT 정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젊은 세대와의 동행에 팔을 붙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NGO(비영리민간단체) ‘산가뜨’와 협력해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산가뜨는 사례별로 전문 담당자를 배정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시 해당 아동·청소년을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는 임무를 맡는다.

말레이시아 페낭주는 이륜차·자전거와의 공존에 힘쓰고 있다. 페낭주는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는 이륜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전거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륜차·자전거 대기 공간인 ‘바이크 박스’를 설치했다.

바이크 박스는 바다색 주황색으로 칠해진 3m 너비의 사각형 공간으로, 교차로 지점에서 약 4.5m 후방에 설치된다. 올 2월 기준 페낭주 내 53개 교차로에 바이크 박스가 조성됐다. /김현정 기자

‘고양국제꽃박람회’서 비즈니스 상담 전개

국내·외 화훼산업 종사자 주를 이뤄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전세계적으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화두가 떠오르고 우리 삶과 환경을 회복하고 재건하고자 한다. 4년 만에 개최되는 2023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는 변화된 세상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 화훼산업 내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3고양국제꽃박람회의 화훼산업관에 마련된 화훼비즈니스센터에서는 행사 참가자 및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산업 종사자 초청을 통해 △현장 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담은 꽃박람회 국내·외 참가자 및 상담을 위해 초청된 업체(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상담은 해외 관련 종사자와 국내 업



화훼비즈니스센터에서의 진행 중인 현장상담.

체의 상담이 주를 이루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화훼산업 내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업체 간의 B2B 비즈니스 매칭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해외 시장 개척의 국가로는 미국, 네덜란드, 중국, 태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르완다, 필리핀 등의 업체 또는 기관에서 한국의 업체들과 비즈니스 상담에 참여하여 진행 중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어린이집 300곳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

장애아통합·연장반 운영 등 대상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300곳을 선정해 ‘서울형 전임교사’를 확대 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시는 작년 3월부터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 사

업을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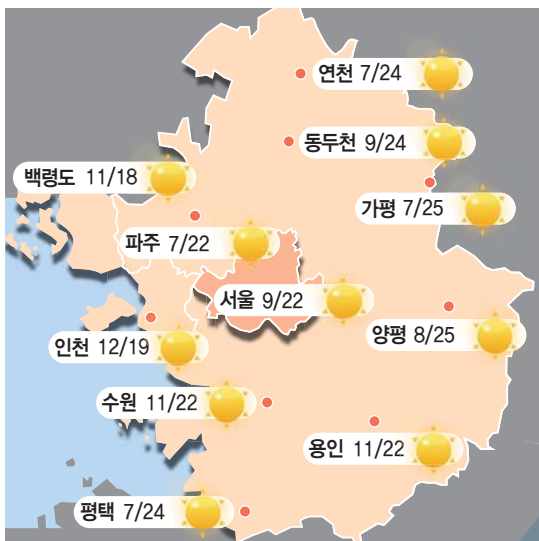
시는 시범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의 총 근무시간은 8.17시간에서 8.12시간으로 줄었고, 양육자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91.14점에서 95.06점으로 상승했다.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대상은 영아보육, 장애아통합, 연장반 운영, 정원 50인 이하 어린이집 등이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美텍사스 총격 희생자에 한국계 3명 포함돼 /사진 뉴시스
▲ 中매체, 한일 정상회담 ‘지역 블록대결 가속’ 폄하

▲ 美재무장관, 디폴트 거둬들 경고
▲ 러, 자포리자 지역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피령’



▲ 아시아계 미국인 절반, “美서 안전하지 않다”
▲ 중국 기술기업, 자체 반도체로 AI 개발 추진 /사진 뉴시스